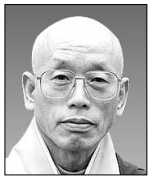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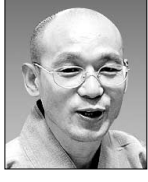
한암문도회 운영위원회 열어
오대산 한암문도회 대표 현해 스님은 12월 17일 월정사 대강당에서 '2004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암 스님 추모사업 계획과 회계제정을 논의했다.



'자비의 통일신발' 후원 일일차집
참여불교운동본부 상임의장 혜승 스님은 12월 23일 전통차집 보송에서 '자비의 통일신발 지원 사업' 후원을 위한 일일차집을 개최한다.(051)302-7902



민추본 민족분단 현장체험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정현 스님은 12월 18·19일 '제4회 통일열린 민족분단 현장체험' 행사를 경기 파주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개최했다.



광주불교교육원, 참선요지 특강
광주 마하연 선원장 목우 스님은 12월 23일부터 2개월간 광주불교교육원에서 '중국어 스님의 참선요지'를 주제로 특강을 연다.(062)228-9098



해동사, 새해 첫날 참회 연비식
완도 약산 해동사 주지 일광 스님은 12월 31일 새해맞이 참회법회와 108배 참회정진 연비식을 개최한다.(061)555-0879



중앙승가대 법인 사무처장에
중앙승가대 법관 스님(중앙승가대 4기 졸업)은 12월 16일 중앙승가대의 학교법인인 '승가학원' 신임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美, 고려서사 '진심직설' 강의
전북불교대학 강건기 학장(전북대 철학과 교수)은 송광사 미국 LA분원 고려사 초청으로 12월 28일부터 2개월간 지눌 스님의 '진심직설'을 강의한다.



'자랑스런 동국인상' 수상
육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상덕 스님이 12월 16일 서울 엠버서더 호텔에서 동국대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2004 자랑스런 동국인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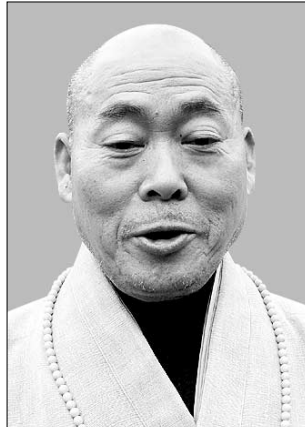
위덕대 여자축구단 홍보위원 위촉
불자구 김홍국 씨가 12월 15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위덕대 여자축구단 창단식에서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



일산불교병원 기획조정실장에
심장판막과 고혈압 질환 권위자인 전 서울대 순환기 내과 이명목 교수가 12월 13일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총림에 걸맞는 도량에 최선”

선암사 새 주지 상명 스님



“선암사는 1400여년을 이어온 선교(禪敎)양종의 대 본찰이자 태고종의 유일한 총림입니다. 사부대중의 지혜를 빌려 총림에 걸맞도록 수행·공부하는 도량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2월 15일 열린 선암사 운영위원회에서 제25대 주지로 선출된 상명 스님(사진)은 “종도화합과 선암사 가풍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상명 스님은 “현재 100여명의 대중이 정진중인 산문을 개방해 내년에는 200여명의 대중이 모여 살도록 하겠다”며 “새로 개칭된 총림법에

따라 방장뿐 아니라 부방장, 선원장, 소임별 역량강화 박차

며 대중과 신도들의 적극적인

인 동참을 당부했다.

상명 스님은 전남 백양사 불교전문강원과 양산 통도사 불교전문 강원에서 사교과와 대교과를 수료하고 1973년 광산 금산사 주지를 시작으로 서울 상도동 백운암 주지, 장성 장명사 주지, 광주 삼정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선암사

총무와 교육원장, 교무 등을 맡아오며, 광주시 사암연합회 10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상명 스님은 “사중의 대중과 신도가 일심동체되어 종정 큰 스님을 중심으로

정정수행도량 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대중과 신도들의 적극적

인 동참을 당부했다.

상명 스님은 전남 백양사 불교전문강원과 양산 통도사 불교전문 강원에서 사교과와 대교과를 수료하고 1973년 광산 금산사 주지를 시작으로 서울 상도동 백운암 주지, 장성 장명사 주지, 광주 삼정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선암사-이준엽 기자

수행·산행·봉사 역점

부산불교신학인회 박웅락 새 회장



“부산불교신학회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불교신학회입니다. 그 전통과 위상에 걸맞게 수행과 산행, 봉사 세박자를 고루 갖추는데 역점을 두고 정진하겠습니다.”

12월 12일 부산 다이아몬드 호텔에서 열린 부산불교신학회 제12차 정기총회에서 부산불교신학회 7대회장으로 선출된 박웅락(61·사진) 회장의 각오가 새롭다.

5년 동안 부산불교신학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박 회장이 꼽는 역점 사업은 ‘부산불교신학회의 사단법인 추진’이다.

“산에서 만난 불교에 심취한 3백여 명의 회원 모두 산행이 곧 수행인 참다운 불제자로 거듭 나겠다”는 박회장은 “문을 활짝 놓고 함께 산을 오르며 공부할 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웃어 보였다. (051)248-5230

천미희 기자

신설동에 노숙자쉼터 ‘사명당의 집’

작은 손길 김광하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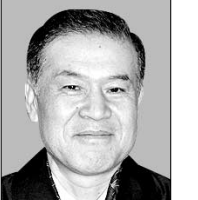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지하철역에서 나와야 하는 노숙자들이 잠시 들러 식사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3일 서울 신설동에 노숙자 쉼터 ‘사명당의 집’을 개소하는 ‘작은손길’ 김광하(52·사진) 이사장. 1998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탈북 청소년, 독거노인 등의 재활을 도운 김 이사장은 “노숙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쉬면서 새롭게 일어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0여 평 규모에 샤워실과 운동방, 세탁터 등으로 이루어진 ‘사명당의 집’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노예로 끌려간 조선 백성들을 ‘구출’해 온 사명대사의 뜻을 잇기 위해 명명된 것이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노숙자 재활 프로그램 운영, 책자 발간, 외국인 노동자 컴퓨터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덕암 스님 1주기 추모법회



제14·16세 태고종 종정을 지낸 덕암 대종사 원적 1주기 추모법회가 12월 10일 서울 법륜사에서 열렸다. 덕암 스님의 부도 앞에서 진행된 이날 법회는 원로위원 혜경·보봉 스님을 비롯해 종단 관계자와 덕암화상문도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당학원 휴명 이사장 취임식



학교법인 회당학원은 제19대 이사장 휴명 정사의 취임식과 전임 진당 정사의 이임식을 12월 16일 위덕대 법인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효암 통리원장, 진산 중앙총회회장, 위덕대 한재숙 총장 등 재단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북구사암련 송년법회



서울 성북구사암연합회와 성북경찰서 경승위원회는 12월 10일 동방예당 문화원에서 갑신년 송년법회를 열었다. 법회에는 사암련 회장 호암, 경승실장 종근, 개운사 원우, 보경사 원공 스님, 서천교 구정장, 김종양 경찰서장 등이 참가했다.

원주불교대학 제4기 졸업법회



원주불교대학(학장 원행·치악산 구룡사 주지)은 12월 11일 구룡사 대웅전에서 제4기 졸업법회를 개최했다. 재학생 109명 가운데 55명이 졸업한 이날 법회에는 원주시교육장 이문희 거사를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7회 실상문학상 수상자 발표



최만조씨 배기환씨 차달숙씨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능지) 주최로 12월 14일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7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에서 최만조씨가 본상을 배기환, 차달숙씨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포교에 앞장서온 문학가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실상문학상 본상을 수상한 최만조씨는 아동문학가로 월간 아동문예로 등단, 초등학교 교과서에 ‘농악소리’라는 작품이 수록

된 바 있다. 부산아동문학상, 한국동시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동시집 <글속도 아이들> <봄비의 마음> 등 다수가 있다.

우수상에는 월간 시문학을 통해 등단, 시집 <전생을 굶다> 등을 펴내고 부산문인협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기환 시인과 칼럼집 <마음따라 달라지는 인생살이>를 비롯 신심 담긴 작품을 써온 수필가 차달숙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천미희 기자

제19회 만해문학상 수상 홍석중씨, 금강산에서



도서 출판 창비가 주관하는 제19회 만해문학상에 분단 후 북한 작가로는 처음으로 국내 문학상 수상자에 선정돼 화제를 모았던 홍석중(63·사진)씨가 12월 13일 금강산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가해 상을 받았다.

홍씨는 대하소설 <임궏정>의 저자 박초 홍명희의 손자로 지난 2002년에 펴낸 장편소설 <황진이>로 만해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씨는 1941년 서울에서 출생해 48년 조부를 따라 월북,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를 졸업했다. 주요작품으로는 장편소설 <눈새바람> <황진이> 등이 있다. 여수령 기자

佛心에 원력이 깊으신 투자자를 모십니다

국내최초 불교병원

방부불교병원은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자비실천운동을 펼치는 불교종합병원입니다.

“ 병자를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만일 병든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돌보지 않으면 법률로서 다스리리라. 이것이 내가 내린 명령이니라. <증일아함경> ”

불교세가 약하다는 호남의 중심 광주 한복판에 '불교'의 이름을 걸고 佛法 수호는 물론 부처님의 慧命을 받들고자 신명을 다해 250여 명상을 갖춘 '방부불교병원'을 개원해 1년여를 운영해 왔습니다. 오로지 빛고을 광주에 佛心을 일으키고, 열악한 불교 의료환경에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마음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마음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영 미숙으로 상당한 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부처님 전 눈물로 기도에도 매달리지만 현실의 냉정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국 제방의 대덕스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佛心에 원력이 깊으신 佛子 여러분에게 투자해주시기를 읍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전 에워하면서 중생 환우들을 구하시라 法友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은행 725-10-022949 (예금주 방부의료법인)

투자문의 062-221-3204 011-655-1406 / 011-613-9050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약사여래불
갑선년 10월 관음제일에
병원장 홍기표 합장

진한감동, 따뜻한 병원
방부불교병원
BANGBU BUDDHISM HOSPITAL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88-14
Tel. 062)221-3300

• 가정의학과 | • II • III • 내과 | • II • 일반외과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비뇨기과 • 마취통증의학과 • 영상진단의학과 • 예진실 • 종합건강진센터 • 응급실 등